



이리동중 육상부 최명진, 대회 3관왕

이리동중학교 육상부 최명진 학생(3년)이 제52회 전국종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100m, 200m, 400mR로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소년체전에서 부정 출발로 아쉬움을 삼켰던 이번석 학생(3년)은 110mH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회 3관왕에 오른 최명진 학생은 “대회 신기록을 세워 무척 기쁘다”며 “더운 날씨에도 같이 열심히 훈련한 친구들과 계주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이 더욱 기쁘고 앞으로 육상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나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석 학생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해 아쉬움이 커는데 이번 대회에서 단체종목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에서도 메달을 획득해 너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2학년 김유민 학생은 “형들과 좋은 추억을 쌓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형들이 졸업해도 이리동중학교 육상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훈련하겠다”고 말했다.

운동부지도자 박세근 선생님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도 훈련에 잘 따라와 준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고 다음 대회도 잘 준비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운수 교장은 “학생들이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은데 결과가 좋게 나와 마음이 편하다”면서 “학생 선수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훈련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지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 금산면장 무더위 쉼터 경로당 현장 방문점검

김제시 금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7월 4일 자로 부임한 신임 이승곤 면장이 지난 5일부터 쟁우리 부평 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53개 경로당 방문을 이어가며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부임 인사와 함께 폭염대비 행동요령 및 하절기 재난안전 예방수칙 전달 등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불편한 시향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어르신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가장 먼저 경로당을 방문해 주신 신임 면장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동안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좋아지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수리 및 잡기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곤 금산면장은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살피는 것이 면장의 소임”이라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현안 문제와 이로사항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주천면, 찾아가는 모정 간담회

남원시 주천면은 11일 히송마을을 시작으로 관내 23개 마을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모정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정간담회는 코로나9로 인해 중단한 이후 4년 만에 다시 운영, 현장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면의 운행에 반영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3 남원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과 고향사랑 기부제 등 시정 홍보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오령 등을 알리고, 주천면 복지 특화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도난도란 염색방, 우리동네 효자손 등을 안내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주 주천면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거시적인 층면에서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살기좋은 주천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청년 농업인의 성공 모델 되고파”

인월면 포도 재배 김민지씨,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 ‘최우수상’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0일 전북 농업기술원이 주최한 2023년 전북 청년농업인 농신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인월면 포도(시인머스켓) 재배 청년농업인 김민지(33세)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청년이 가진 농업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사례를 공모해 시장·홍보함으로써 농산업에 대한 관심 확산과 미래농업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다.

대회 참가 대상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영농 종사자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만40세 미만)으로,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9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 심사에서 지역 사회 기여도 및 파급효과, 농업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수상자 3인:최우수, 우수, 장려)

김민지씨는 “시인머스켓을 활용한 저알콜 와인 양조 방법 개발”이라는 아이디어로 경진대회에 참가했으며,

특히 밭효실험실 연구원 경력을 활용한 기능성 와인 개발이라는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21년 선정된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업인으로,

남원시로부터 영농정착 지원금 등을 받아 고품질 사인

머스켓 재배와 와인 양조법 개발 등 차별화된 영농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수상 소감으로 김민지씨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귀농해 정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남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며, “청년후계농이라는 사명감과 목표 의식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농촌에서 희망을 찾은 청년농업인의 성공 모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재 167명의 청년후계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책지원금, 후계농업경영자금, 영농기반 임차료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청년농업인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명제·고성환 정읍시의회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오명제 의원과 고성환 의원이 지난 10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하고,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명제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현장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나후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토목·건설 등 행정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으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희망찬 정읍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성환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현장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나후된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토목·건설 등 행정 전문가로서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으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초심을 잊지 않고 언제나 희망찬 정읍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농협, 함께하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김미자), 고령주부모임(회장 김경리)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여성농업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세상의 질반, 여성을 보다’란 주제로 김영일 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여성조직 리더로서의 자세, 협동조합의 이해와 여성리더의 역할 등을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이어 김기홍 안성교육원 교수로부터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고 직접 익힘으로써 스마트한 여성 리더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꽃누르기 장금순 강사로부터 암회공예를 배우고 체험해보는 일정 시간을 가졌다.

김영일 본부장은 “긍정에너지로 농촌을 기득 채워주시고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여성농업인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농협은 여성농업인의 차이형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농업인, 지역사회, 지자체로부터 칭찬받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강동진 드리로드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

무주군은 11일 (주)드리로드 강동진 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강동진 대표는 “무주에서 사업체를 일구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무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라며 “오늘 기탁하는 기부금이 무주발전의 토대가 되고 무주군민의 행복을 쌓아주는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2019년에 설립된 (주)드리로드는 레미콘·아스콘류 생산 판매와 폐기물 중간 처리를 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해에는 무주종합복지관에 1백만 원을 기탁하고 매년 명절과 어버이날에는 사업체가 소재해 있는 무주읍 원용마을을 어르신들을 챙기는 등 지역사회에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무주군은 벌초대행서비스 등 총 47종의 딥레풀을 마련하고, 관내 소외계층에게 농산물꾸러미를 선물할 수도 있도록 포인트 기부하기 상품도 준비해 기부로 형성된 가치가 재기부로 선순환 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참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문제발견과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과정을 참여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방법들을 간접경험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장수청소년문화의집, 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시민교육 운영

장수군·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자치활동 증진을 위해 계남중학교와 장계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문화의집 역량강화’ 프로젝트·보드게임으로 배우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의 ‘시민법인 플레이어스쿱’과 독일의 시민교육 기관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에서는 미래 시민의 필수 역량인 협동(Collab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청의적인 혁신(Creative Innovation), 콘텐츠(Content), 자신감(Confidence) 등 6가지 기술을 중심으로 모의선거와 보드게임을 진행했다.

특히 모의선거와 보드게임은 최신 교육공학 학습법인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기법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선거를 재미있게 느끼고 배울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모의선거와 보드게임은 최신 교육공학 학습법인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기법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선거를 재미있게 느끼고 배울 수 있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JJ골프아카데미 숙녀회, 전주대에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JJ골프아카데미 숙녀회(제9대 회장 윤금주)로부터 발전기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흥성덕 대외부총장, 흥성택 평생교육원장, JJ골프아카데미 숙녀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윤금주 회장은 “골프를 통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 및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조급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JJ골프아카데미는 현재 15주식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좋은 시설과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여성과 직장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남원서 사랑의 백미 기탁식

남원시는 지난 7일 관내 아성 골프연습장 김종오 공동대표가 시장을 찾아 ‘사랑의 백미’ 100포(환가액 5백2십만원 상당)를 기부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순택 남원부시장과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아성골프연습장 김종오 공동대표가 참여했으며, 기부된 백미는 아성골프연습장 준스კ린골프, 쌍용양회 광주지사에서 싱사일반 모금된 것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 흙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순택 남원부시장과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아성골프연습장 김종오 공동대표가 참여했으며, 기부된 백미는 아성골프연습장 준스კ린골프, 쌍용양회 광주지사에서 싱사일반 모금된 것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 흙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순택 남원부시장과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아성골프연습장 김종오 공동대표가 참여했으며, 기부된 백미는 아성골프연습장 준스쿠린골프, 쌍용양회 광주지사에서 싱사일반 모금된 것으로 관내 저소득 세대, 흙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